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 15:10)

2023년 4월 30일 부활 4주일 · 가해 · 백색

제58-18호

목자와 양

(요한 10:1-1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일컬어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듣고 목자가 이끄는 데로 풀을 뜯으러 옮겨 다닙니다. 양은 고도근시입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기에 서로 서로 웅기종기 붙어 다니면서 서로의 목소리와 냄새에 의존하여 무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양들의 처지가 이러다보니 앞을 잘 보고 어디에 신선한 먹이가 있는지 잘 아는 목자를 만나는 일도 양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히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따라가야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양들에게 목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 양을 치는 샅꾼 목자와 달리 양들을 위해 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는 착한 목자의 모습은 죄 없으면서도 죄인들을 위해 수난당하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맞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집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다독이시고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착한 목자의 모습에 어려 있습니다.

다 큰 양들은 목자의 음성도 알아듣고 목자가 이끄는 데로 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양들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로의 냄새와 울음소리에만 의존한 채 목자가 이끄는 데로 가지 않고 자신의 하찮은 능력에 기대어 스스로 풀을 찾으려다 그만 양의 무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험한 길을 가야만 하지만 착한 목자는 한 마리의 양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양들만 다니는 좁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목자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 부활의 빛으로 읽을 때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차례 발현하시고 난 다음에야 주님께서 공생활 중에 왜 그토록 죄인들과 어울리고 아픈 이들을 낫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양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양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위한 사랑의 승리임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은 삶의 고난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경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만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착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살기 위한 조건이며 배경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균하 신부)

주일 성찬례 일요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평일 성찬례 화·수·목·금 오전 6시 30분

어린이 예배와 영성체 오전 11시

청소년 예배와 영성체 오전 11시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 신부

신자회장 김중희 요셉

사제회장 서남철 아브라함



모든 교우는 교회 소식란을 상세히 읽어주시고, 사목 일정과 교우 소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자로 드리는 긴급 소식이나 보고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와 사목

◆ 부활절기 전례곡 안내

부활절 50일(부활주일~성령강림주일) C곡 (성가 81장 이후)

◆ 평일 아침 성찬례

- 화, 수, 목, 금 오전 6시 30분
- 수요일에는 미사 후 다과와 함께 담소 모임이 있습니다.

■ 알림

◆ 청년회와 관할사제의 만남

4월 30일 (오늘) 1시 - 3층 회의실

◆ 5월 교회위원회

5월 7일 (다음 주일) 12시 45분 - 3층 회의실

◆ 청소년 견진 캠프

5월 12(금) - 14(주일) 2박3일 @ 온수리 성당
세례를 받은 성공회 청소년 [회비 5만원 / 신청마감 4월 30일(오늘)]
문의: 선교교육국 010-7339-0527

◆ 주일 간편 점심

이번 주일: 김밥 / 다음 주일: 빵과 음료

◆ 연중 심방 일정과 신청

5월 3일(수) - 관악 구역
5월 중 가정 심방을 신청해 주세요. 지난 심방 기간에 하지 못한 가정이나 구역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회 나들이

5월 13일(토)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고석정 꽃밭
(오전 6시30분 성당 출발)

◆ 서울교구 남성합창단 연습

4월 30일(오늘) 30일 오후 4시 @ 우리 성당

◆ 성당 전용 성가책 사용

성당 전용 성가책이 봉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가책은 65세 이상 교우와 새 교우가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교우는 되도록 자신의 성가책을 구입하여 모든 전례에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눔과 재활용

- 노트와 다이어리 재활용
- 에코백(성당 물품 나눔에 사용)
- 도서류(특히, 비아 독서 회원 책 - 성당 도서실 마련)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심민경(1일) 유창환 한기원(2일) 문해화(3일) 권오현(5일)
이정주(6일)

온세대 온가족 성찬례 - 다음 주일 11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주일 오전 11시 성찬례는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와 더불어 유년 청년장년 노년 모든 세대가 모여 성찬례를 드립니다. 또한 온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전례 공간과 회중 의자 사용도 안내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한회 월례회

4월30일(오늘) 11시 성찬례 후

◆ 어머니회 선교기금 물품 판매

다시마 1kg(1박스) 1만8천원 참기름 1병 1만원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들기름 1병 1만2천원

엿기름 600g 4천원 녹두 800g 2만원

*판매 수익금은 타 지역교회와 외부 선교단체를 위한 선교기금으로 사용합니다.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고아랑 김영혜 김종희 송미경 신명식 심순덕 심종은 심주민 유윤근
유해상 유호애 윤길자 윤영자 윤옥랑 윤지훈 이현숙 장분순 전병도
주창순 최종주 홍성호

■ 주정헌금

강현모 김경아 김도희 김삼홍 김종현 류인경 박계자 박영수 변금숙
변진선 서용철 서정민 서형락 선병순 송미경 송미정 심종은 윤영옥
윤영자 이경희 이광자 이성빈 이은미 이자영 이정숙 전병도 정은숙
한부순

■ 감사헌금

송미경(간장) 정규일(논문통과)

■ 선교특별헌금

강현모 김삼홍 김용화 송미정 안창희

■ 기탁헌금(미사 헌금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예수사랑

심순덕

■ 나눔의집

윤영자

■ 사순절극기

13명

성공회 영등포 성당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 · 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 선교 특별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47

† 기도해 주세요 †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은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채옥순
최종주 유호애 김복근 이순환 김경수 서세룡

■ 장지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 군복무 양승윤 박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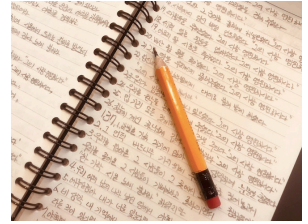
■ 유 학 이재성(독일) 이사빈(독일) 주한나(미국)

■ 임 신 김사라

나의 <시편> 필사 후기 2

이용해 애단 (원로위원)

주낙현 신부님이 <시편 특강>에서 소개하여 주신 영국의 존 오도나휴 신부님의 글이 마음에 남는다.



<이정숙 다비타 교우의
필사 노트와 연필>

지금은 자신을 느리게 해야 할 시간
쓰라린 시절이 지나갈 때까지 내려 앉아 벽에 기대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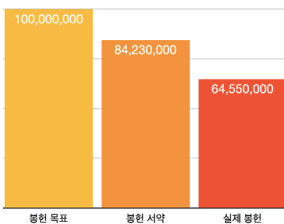
철사로 만든 의심의 빗질이 그대 마음을, 그대의 모든 감각을, 그대의 주저하는
빛을 끊어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

그대가 계속 너그러울 수만 있다면, 시간은 가고 다시 좋아지리니 다시 약속의 푸른 초원을 걷는 그대의 발걸음을 되찾으리니 그곳의 바람은 부드럽고 처음처럼 수줍게 불어오리니

깊은 뜻을 다 해야 할 자신은 없으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에게도 적용해 본다. 지금까지 바쁘게만 살아왔고 무엇이든지 빨리해야 경쟁에서 살아 남는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일상이었다. 느리면 질 수밖에 없다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항상 엄습해 오지 않았던가? 아직도 인터넷 선착순 예매나 예약은 1/1000 초라도 남보다 빨라야 되니 느려도 된다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잠꼬대 같은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런데 꺾어 보면 ‘빨리빨리’라는 생각은 언제나 불안과 초조를 동반한다. 스포츠나 일 처리에서도 빨리 가려다 실패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느림을 즐겨야 삶이 깊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신부님의 강조하는 의미가 아닐까?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다. 필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필사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 알고 있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교과서 이야기로만 들리고, 결국 필사 자체에만 매달려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Better than Nothing’(‘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이라며 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러나저러나 사순절 기간 안에 필사를 간신히 마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옛날 서당에서는 책 한 권 학습이 끝나면 떡을 해서 스승과 학생이 축하 행사를 했다는 관습이 이해된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목표를 달성하고 난 후에 드는 만족감은 엔도르핀을 크게 샘솟게 한다.

집에 들어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하릴없이 멍때리거나 하고 TV에 매달려 빈둥대는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실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이다. 예전에는 필사를 마치고 나서 교회에서 축하 행사로 단체 나들이도 하고 간단한 선물도 돌리면서 필사 후기를 발표하는 자리도 있었다. 생각해 보니 신앙 성숙과 친목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듯하다. 내년에도 필사가 있다면 참여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 마음이 어찌될지 모르나, 좋은 숙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번 <시편 필사>는 나에게 큰일이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 주었다. <시편 필사> 마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특별 봉헌 현황

봉헌 목표액: 1억원 (2023년 12월까지)

봉헌 서약액: 84,230,000원 (4월 23일 현재, 서약자 73명)

봉헌 누적액: 64,550,000원 (4월 23일 현재)

❖ 섬기는 교우들 ❖

교회위원 구경애 번금숙 선병순 신한중 윤영옥 전병도 조진성 추경민 한재엽
원로위원 서세륜 유호애 추형두 이충웅 이용혜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혜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엽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정희 이난희 이광재(마리아)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214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91 다함께
영광송 (C곡) ✧ 246 / ♪ 81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전능하신 하느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
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구하오니, 우리가 크
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자취를 따라가게 하
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사도 2:42-47 말은이
시편 시편 23편 다함께



- 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 아쉬울 것 없으라.
- 2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 3 지켰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끝은 길이요,
- 4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자날지라도
○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으라.
- 5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을 차례주시고,
○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웁니다.
- 6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 독서(읽는다) 1베드 2:19-25 말은이
창세성가 성가대 특송
복음환호송(A곡) ✧ 291 / ♪ 55 말은이
복음서 (선다) 요한 10:1-10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87 다함께
봉헌성가 ♪ 283장 / 요한회 다함께
예물기도 ✧ 287 말은이
성찬기도 (4양식) ✧ 266
거룩하시다(C곡) ✧ 257 / ♪ 8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6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C곡) ✧ 270 / ♪ 83 다함께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특송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
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
고, 그 사랑 속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
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 (선다) ✧ 288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393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4월 30일)		다음 주일 성찬례 (5월 7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김태영	박남미	김태영	어린이
2독서	서정민	전병도	서정민	청소년
대 도	신명식	추경민	이경희	구정애
십자가	박해웅	이용해/이종한	윤용환	윤영욱/신환종
다음 주일 5월 7일	전례독서 사도 7:55-60 시편 31:1-5,15-16 1베드 2:2-10 요한 14:1-14 성 가 입당 255장 봉헌 275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488장			
교 회 청 소	5월 6일 청년회 강현모 김태영 김건우 김예찬 신승지 우영현 정동균 하원재		5월 13일 요한회 1조 신환종 이종한 한재업 김종현 차기영 고희	